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탄력

정부 국제행사 승인... 2014년 4월11일부터 한달간 열려

정부가 '완도 해조류 박람회'에 대해 국제행사 승인을 함에 따라 완도군이 추진하는 해조류 박람회 개최에 탄력이 붙었다.

완도군은 "바닷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준비한 '2014 완도 해조류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로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완도군은 전남도와 공동으로 2014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31일간 완도항과 해변공원, 장보고유적지 일대에서 해조류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군은 토양오염과 기후 온난화로 인

류의 지속성장이 위협받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해조류박람회를 야심차게 준비해 왔다.

군은 청정바다인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대체 식량자원으로 제시하고 기능성 식품·뷰티·소재·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산업박람회로 열 계획이다.

전시장은 박람회 랜드마크가 될 미관을 포함해 주 전시관 4개소, 문화관을 만들어 체험과 교육을 병행한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 20개국이 참가하는 기업관은 150개 부스를 운영한다. 해조류 관련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수출상담이 이뤄진다.

군은 앞으로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시관 시설·행사 프로그램 등 박람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중식 군수는 "해조류박람회 개최를 통해 완도군의 브랜드 향상은 물론 지역 해조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해양생물산업과 해양관광 발



'2014 완도 해조류 박람회' 조감도

전에 큰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추석 연휴 영산강에 황포돛배 뜬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영산강에 전통 한선인 황포돛배가 뜬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황포돛배와 '왕건호'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영산포 선착장에서 다시면 회진까지 10km 구간을 운항한다.

운항시간은 1시간이며 왕건호는 하루에 2차례, 황포돛배는 7차례 운항할 예정이다.

요금은 왕건호가 4000원에서 1만원까지, 황포돛배는 2000원에서 8000원까지며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승선하고 나주시민은 50% 할인된다.

왕건호는 전통 한선을 복원한 97t급 복선으로 96명이 탑승 가능하다.

황포돛배는 3.3t급 복선에 돛을 달아 옛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죽산보가 건설돼 수위가 높아져 영산강 유람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태풍피해 멜론 하우스 돕기

농협 전남검사국(국장 문명식)과 옥과농협 직원들이 27일 곡성군 겸면 가정리 멜론재배 시설하우스에서 태풍으로 망가진 하우스를 철거하고 있다. 곡성지역 멜론재배 농민들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순천에 600실 규모 숙박시설 들어선다

도·순천시-5개업체 협약... 호텔·콘도 등 건립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막을 205일 앞둔 가운데 순천지역에 600실 규모의 숙박 시설이 들어선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지난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이에이 건설 등 5개사와 600실 규모의 관광호텔 및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개사의 투자금액은 총 2079억원에 달한다.

(주)제이에이 건설은 해룡면 부지

3만9669㎡에 250억원을 투자해 15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유)성광산업 개발은 석현동 부지 37만4183㎡에 1059억원을 투자해 200실 규모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성운종합 건설(주)는 해룡면 1만8912㎡ 부지에 320억원을 투자해 10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주)가야는 연향동 2만5618㎡ 부지에 300억원을 투자해 86실 규모의 콘도형

가족호텔을, (주)유익은 오천동 1만2285㎡ 부지에 150억원을 투자해 83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북남 부시장은 "앞으로 들어설 관광숙박시설은 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숙소뿐만 아니라 이후 순천만과 전남 동부권을 찾는 관광객과 국내외 수학여행단 유치하는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오랜만에 친정 부모 만나 행복했어요"

7년만에 고향 필리핀 다녀온 살리비안드라테씨

담양군·군 다문화가족센터 친정 나들이 6명 지원 호응

"늘 꿈속에서도 그리워 했던 친정에 다녀왔어요. 부모와 가족을 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최근 남편과 아들 3명 등 전 가족과 함께 7년 만에 고향인 필리핀을 다녀온 살리비안드라테(사진)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결혼 후 5년 만에 어렵게 고국을 방문하고 나서 어려운 살림 탓에 다시 만날 약속을 기약하지 못했다가 7년이 지나 최근 2번째 고국 방문을 했다.

담양군과 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최근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을 펼쳐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지원을 받고 고향을 다



녀왔거나 갈 예정인 다문화 가족은 필리핀 출신 살리비안드라테 씨를 비롯해 예지리아미에프(일본), 김해화(중국), 사에탕미이나(태국), 이향란(중국), 팜김투(베트남) 씨 등 6명.

다음달 부모 제사에 맞춰 태국을 방문할 사에탕미이나 씨와 결혼 후 처음으로 중국 방문길에 오르는 이향란 씨는 가족을 곧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 출신의 팜김투 씨도 부모를 대신해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85)가 건강하기만을 빌며 10월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족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한국생활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rg@

목화밭서 고향 향수를 곡성 곁면서 내달 2~3일 축제

"목화밭에서 옛 정취와 향수를 느껴보세요." '목화의 고장' 곡성군 곁면에서 10월 2~3일 이틀간 목화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2만㎡에 달하는 곁면 칠봉리 목화공원에서 목화를 배경으로 옛 정취를 살리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시 프로그램으로 솟타기 과정 등 체험 도구와 목화화 인물, 목화와 문학, 목화 관련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목화전시 체험관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면실유를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등 무명베 짜기, 목화따기, 목화솜을 이용한 나만의 핸드폰 걸이 만들기, 목화다래 미니 골프치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제1회 목화배 게이트볼대회와 면민화합 율놀이대회, 면민 노래자랑 등도 함께 열린다. 곁면 목화축제추진위원회 심정식 위원장은 "점차 잊혀져 가는 목화를 소재로 옛 정취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서편제, 세계를 흔들다 보성서 내달 20~21일 축제

'제15회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가 10월 20~21일 이틀간 서편제 보성소리 전수관과 다향체육관에서 열린다. '서편제 보성소리! 세계를 흔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첫 날인 20일에는 기념행사와 전국 관소리·고수 경연대회 예선, 전통 예술 명가 공연, 조상현 명창 공연, 대북과 가야금 협연공연 등 다양한 국악 행사가 선보인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성창순·송순섭·오정해 등 관소리 인간문화재와

명창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천하제일 명창공연과 신나고 흥겨운 김덕수 사물놀이, 전국 외국인과 이주 여성이 참가하는 우리 소리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경연대회는 관소리와 고수분야로 나눠 명창부와 대학·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으로 열린다. 전국 관소리 경연대회의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이, 고수 경연대회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과학기술

부 장관상이 수여돼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1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보성군청(061-850-5203)이나 보성문화원(061-850-5892)에 접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상품기간 : 2012.09.01 ~ 2013.02.28 *버스패키지 계약금 50,000원

특급호텔과 함께~ 가을 특가여행!! **2박 3일**

*항공시간 - OZ8147 19:20분 광주출발/ OZ8148 19:20분 제주출발 기준

신라호텔 (9월 24일~11월 6일 출발)
+ 항공료, 호텔(조식), K5 렌트카 48시간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원추가, 전방추가 별도문의 1인 **444,000원부터 ~**

롯데호텔 (9월 24일~11월 6일 출발)
+ 항공료, 호텔(조식), K5 렌트카 48시간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원추가, 전방추가 별도문의 1인 **492,000원부터 ~**

해비치호텔 (9월 24일~11월 6일 출발)
+ 항공료, 호텔(조식), K5 렌트카 48시간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원추가, 전방추가 별도문의 1인 **474,000원부터 ~**

하늘은 보름달이 환하게 밝히고, 고향가는 길은 부모님의 환한 미소가 밝혀줍니다.

가을 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일이 많은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평소의 사랑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상제주 NO.1 제주여행전문렌드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유여행사 374-1881	메이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첨단/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228-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고고투어 603-4416
------------------	----------------	--------------------	---------------	-------------------	------------------	--------------------	---------------

광주광역시 중구 동천1동 1-1번지 / 통신판매업신고 제 2009-480099-30-2-000008